



보도 일시	2023. 1. 15.(일) 11:00 1. 16.(월) 조간	배포 일시	2023. 1. 13.(금) 16:00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실 농지과	책임자	과 장 이승한 (044-201-1731)
		담당자	사무관 김광희 (044-201-1732)

청년농업인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지원을 위한 발판 마련

-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지역으로 전북 김제시, 경북 상주시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선정하였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 동안 임대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국비 54.5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각 3ha 내외)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2년 1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 대상지 공모를 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를 최종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지역인 김제시·상주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지매입, 생산기반조성,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업인 선정, 단지 내 스마트팜 설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스마트팜 혁신단지(밸리) 조성지역이 이번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조감도 >



붙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필요

□ 사업개요

- (사업시행)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규모) 5,448백만원, 국비 100%
 - 사업물량 : 6ha(3ha, 2개소)
 - * 신규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물량은 6ha 수준으로 계획
 - 지원단가 : 908백만원/ha
 - * (국공유지, 유휴농지 매입-용자) 408백만원/ha, (생산기반 조성-보조) 500백만원/ha
- (사업대상지 선정) 청년농 육성 및 영농정착 등 지원을 위해 신청한 지자체 중 농식품부 관련 사업*과 연계 가능한 대상지 선정 추진
 - *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등
- (사업내용)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생산기반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청년농 장기임대·매도
- (지원대상자) 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등 수료(예정)자 중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지원
 - ** 농지 임차 또는 매입의향, 재배면적, 재배작목, 농산물판로 등 포함 검토
- (지원한도) 0.5ha이내/명
- (지원방식)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여 최장 30년간 임대 또는 청년농이 원하는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임대 후 매도 지원